

새로운 잠사업 발전을 위한 구상

심 재 익

대한잠사회

전국의 잠사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각계, 각자의 맡은바 임무를 다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금년 잠사회 화두를 화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잠사업은 양잠, 상묘, 잠종 그리고 제사업이 상호 보완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전되어온 종합적 산업입니다. 각 업종이 서로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잠사회가 화목하려면 4개 단체가 고르게 발전 하여야겠습니다.

첫 번째 양잠농가 분야로 잠업의 근간인 양잠 부문에서는 유통과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누에가루의 기능성식품 등제된 이후 양잠산물의 대대적인 판매를 위해 홍보 전략과 유통계획을 하나로 웰빙 코너 계획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상묘, 잠종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자 본회는 그동안 대북 잠사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16일 개성공단 북측경협사무소에서 북측 민경련 당국자와 1차 실무접촉 및 회의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번의 성과는 개성인근에 우선 5,ha의 양잠시험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상묘, 잠종이 북측에 금년에 수출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된 고치는 전량 제사업체에 공급됨으로써 제사견 연사업도 새로운 활로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험단지의 성공과 나아가 북측이 요구하는 1만 정보까지 계속적으로 확대 생산이 추진된다면 우리의 양잠기술도 본격적으로 함께 수출되어 양잠, 상묘, 제사업 등 잠사업의 공영과 부활도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을 기대합니다.

본인이 지난 2월 대한잠사회 제24대 회장으로 연임된 것은 이러한 소임을 다하라는 전국잠사인의 뜻으로 생각하여 잠사업 재탄생에 모든 역량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